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마음 | 제28회 친절봉사대상 시상식

묵묵한 봉사과 헌신으로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밝힌 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북여성가족재단 대강당을 가득 채웠다.

2026년 제28회 친절봉사대상 시상식이 지난 19일 오후 2시 전북여성가족재단 2층 대강당에서 열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온 수상자인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박수가 쏟아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한적십자사 강천봉사회 회장 이기자 씨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장이자 개성산계탕 대표인 정원선 씨, 전주완산소방서 체경희 소방위, 전북경찰청 안보수사와 신승경 위가 제28회 친절봉사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 200만 원, 꽃다발이 전달됐으며, 행사장에 참석한 가족과 친지들은 뜨거운 박수로 축하를 보냈다.

이기자 대한적십자사 강천봉사회장은 평소 봉사 활동에 전념해 43년간 대한적십자사 봉사원으로 활동했으며, 1987년부터 순창군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한 공을 인정받았다.

정원선 개성 산계탕 대표는 국제라이온스클럽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회장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재를 들여 음식 등을 기부했다. 또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지속적인 성금 기탁 등 기부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오랜 기간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체경희 소방위는 23년간 119구급대원으로 활동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헌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복지 서비스 생필품 기부 등 지속적인 나눔 실천과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활용 긴장된 업무로 정서 불안에 시달리는 동료 소방관 안정치료를 돕는 등 지속적인 나눔 실천과 헌신으로 큰 감동을 전했다.

신승경 위 역시 17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속하고 친절한 대응과 장애인 외국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방문 조사로 친절한 교통경찰 이미지 정립, 고가의 수입 차량 밀수



2026년 제28회 친절봉사대상 시상식이 지난 19일 오후 2시 전북여성가족재단 2층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직 등 국제 범죄 피의자 검거 등으로 공경하고 신뢰받는 경찰 이미지 제고를 통한 도민의 신뢰를 받은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친절봉사회 발전과 지역사회 봉사에 기여한 회원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이어졌다.

감사패는 친절봉사회 수석부회장으로 수고해 온 김종상 동양비니류상사 대표와 사무국장으로 수고하는 이만호 (주)전주매일 정지부장, 휴일이면 이날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회원인 박광호 (주)부운 엔지니어링 이시에게 수여했다. 세 사람은 오랜 기간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며 친절봉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 온 공로를 특별히 인정받았다.

시상식 행사 후반에는 수상자들에게 친절봉사 회원들이 손수 준비한 꽃다발과 친절봉사회 상징 배지를 전달

하는 시간이 마련돼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친절봉사회 회원들은 수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따뜻한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더욱 널리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테너 조지원과 소프라노 조안나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감동의 여운을 더했다. 참석자들은 축배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삭막한 시대 속에서도 사람의 온기가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28년째 이어지고 있는 친절봉사대상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특별히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로, 전북의 대표적인 나눔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01만호 기자



김진국 신임 진안군 공노조위원장 당선

제11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김진국 주무관이 당선됐다.

지난 19일에 치러진 제11대 진안군청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조합원 644명 중 558명(투표율 86.65%)이 참석한 가운데 534명(95.70%)의 지지를 얻어 당선 됐다.

이번 선거에는 민원봉사과 김진국 후보가 단독 출마했으며, 부위원장으로서는 사회복지과 윤인순 팀장과 재무과 김호진 주무관이 함께 당선됐다. /진안=유태만 기자



전은, 가정의 달 맞아 심폐소생술 안전체험 운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객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은행은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본점 1층 로비에서 'IB안전체험코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은행 안전관리부는 본점 경비대 요원들을 대상으로 119안전체험관 사전 교육을 진행했으며, 심폐소생술 실습용 마네킹 3세트와 유아·어린이용 마네킹도 준비해 다양한 응급 상황에 대비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사장 곳곳에는 식품안전과 교통안전, 화재예방 등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배너도 설치돼 방문객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예정이다.

또 심폐소생술 이해를 돕기 위한 프레젠테이션과 동영상 자료도 함께 상영된다. /오상근 기자



2026 김제시 귀농귀촌 기본교육 수료식

김제시는 지난 19일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귀농·귀촌 기본교육 교육생 35명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교육은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지난 3월 4일부터 이날까지 총 16회 80시간 과정으로 작목별 재배기술, 사업계획서 작성법, 마케팅, 현장체험 등 실질적으로 귀농 준비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수료식은 교육생 만족도 조사를 시작으로, 축하, 수료증 수여, 단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기본교육 수강생 47명 중 35명(이수율 74%)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교육을 마친 한 교육생은 "현장 중심 교육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귀농·귀촌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실제 농촌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해 더욱 내실 있는 2026년 귀농귀촌 심화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제=곽도태 기자

남원소방서 119구급대 신속 처치

남원소방서(구급팀장 최승범)는 최근 기온 상승에 따른 폭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경, 남원시의 한 밭에서 작업 중이던 A씨(88, 여)가 쓰러진 것을 발견한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 구급대원들은 A씨가 고열과 안면 홍조, 식은땀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의식을 잃은 위급한 상태를 확인 후 즉각 기도를 확보하고 생체 징후를 측정했다.

이어 얼음팩과 생리식염수 등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등 전문적인 응급처치 시행하며 인근 거점 병원인 남원의료원으로 환자를 이송했으며, 구급대원들의 침착하고 신속한 대처 덕분에 A씨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부터 점차 생체 징후를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하림, 인플루언서 앰버서더 2기 협약·위촉식 개최

피트니스 모델 박다빈·성치현·서이진 합류

종합식품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지난 19일 전북 익산 하림 본사에서 인플루언서 앰버서더 2기 협약 및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브랜드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호석 하림 대표이사과 협력사인 (주)JUNO 김동욱 대표를 비롯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새롭게 하림 가족으로 합류한 박다빈, 성치현, 서이진 앰버서더가 참석했다. 행사 중 앰버서더들에게는 하림의 진정한 파트너임을 상징하는 명예 사원증과 배지가 수여됐다.

새롭게 출몰한 2기 앰버서더는 피트니스 분야의 전문성은 물론 라이프스타일 전반에서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최정상급 인플루언서들로 구성됐다. 주요 인물로는 △2025 IFBB 차이나 체급 1위이자 헬스장을 운영 중인 박다빈 △2019 WBFF 북미 챔피언 우승자이자 '피지컬: 100', '2499년: 결혼전쟁' 등에 출연해 대중적 인지도를 쌓은 성치현 △그립프리 통산 13연패의 레전드 선수이자 가족을 위한 건강 레시피를 전하는 워킹맘 서이진이 발탁됐다.

이들의 공식 활동 기간은 2026년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 총 12개월이다. 하림은 1기 운영의 성공적인 발자취를 이



어, 기존 단기 프로젝트형 활동을 연간 파트너십으로 전면 확대했다. 또한 단순 제품 홍보를 넘어 '홀트하는 육이맘', '건강식단 크리에이터' 등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다각화하여 일반 건강 관리층 및 가정 주부층까지 타깃 접점을 대폭 넓힐 계획이다.

한편 위촉식 일정을 마친 앰버서더들은 하림의 최첨단 스마트팩토리를 둘러보는 HCR(Harim Chicken Road) 투어에 참여했다. 이들은 투어를 통해 하림의 핵심 가치와 경쟁력을 확인하고, 직접 신선함을 경험하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익산=이재훈 기자

'다름을 인정하다'... 정읍시, 버크만 진단 활용 혁신 연수

정읍시가 조직 내 원활한 소통을 이끌고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년 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심리 진단 도구를 활용한 역량 강화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시청 내 청년 공무원 혁신 모임인 '혁신ON' 구성원들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핵심 분석 수단으로 쓰인 버크만 진단은 개인의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행동 방식은 물론 내면의 욕구와 스트레스 반응까지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심리 검사 도구다.

이날 강사로 나선 국가공무원연수원 송운서 팀장은 버크만 진단을 활용한 자기 이해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세부 과정은 △버크만 진단 개요 이해 △일하는 방식과 소통 방식 분석 △팀별 결과 사후 토의(디브리핑) 순으로 짜였다.

연수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각자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성향 차이를 인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부서 간 협력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의견 충돌을 부드럽게 조정하고 동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았다. 특히 이번 자리에는 혁신 모임 21뿐만 아니라 1기 선배 공무원들도 동참해 그간의 경험을 나누며 열기를 더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군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다움, 도지사 표창

군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일 익산에서 열린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 에서 센터 소속 정다움 청소년이 우수 청소년으로 선정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다움 청소년은 군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며 화합과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

다. 다양한 체험활동과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책임감과 자부심을 키우며 또래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진호 군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가능성과 성장을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신의 역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남원농협,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지난 14일 남원농협 회의실에서 '제5기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개강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교육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교육에는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7개국 출신 결혼이민여성 15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총 15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실습 중심의 농업교육을 비롯해 농기계 실습, 작물 재배기술 교육, 농산물 가공 및 6차 산업 심화교육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농업 현장 적응력 향상과 자립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충동 지사시험, 착한가게 현판식



남원시 동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미라, 조태봉)는 20일, 1일 1가구 소동행정의 일환으로 관내 '와이에스 정보통신(사업주 김혜수)'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와이에스 정보통신은 타 지역 생활 후 남원에 정착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년 사업가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뜻을 함께하며 착한가게에 동참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23-25일 춘향배 아시아·전국 초청 게이트볼 대회

남원시는 오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종합스포츠타운 주 경기장에서 '제1회 춘향배 아시아·전국 초청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한다.

남원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 남원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남원시 게이트볼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중국과 일본 4개 팀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64개 팀, 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대회는 24일 예선리그전을 시작으로 진행되며, 파드별 1·2위 팀이 본선에 진출, 이어 25일에는 결선리그를 거쳐 선발된 최종 16개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을 다툰다.

/남원=김기두 기자